

지역 균형 발전 전략 구현을 위한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추가 지정

-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인공지능(AI) 로봇·헬스케어 분야 데이터 활용 지원 예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4월 7일(화),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을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이하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노베이션 존은 데이터 처리 환경의 안전성을 높여 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다. 연구자와 기업들이 양질의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 2024년 도입되었다. 이번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지정에 따라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은 기존 7개*에서 8개 기관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 (지정기관) 국가데이터처(구.통계청), 국립암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더존비즈온, 한국도로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광주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이번 지정에 따라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은 이노베이션 존 운영 요건에 맞는 시설·기능 등에 관한 개인정보위의 최종 현장실사를 거쳐 하반기 중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앞으로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은 현 정부 5극 3특 지역 균형발전 전략*인 “인공지능(AI)로봇 수도 대구”를 구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인공지능(AI) 로봇 분야 데이터와 헬스케어 분야 데이터를 중심으로 안전하면서도 유연한 데이터 활용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 수도권 1극 집중체제를 극복하고자 전국을 5개 초광역권(5극)과 3개 특별자치도(3특)로 재편하여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국가성장 전략

더불어,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은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노베이션 존이 본격 운영되면 가명정보 활용 기초 지원(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부터 이노베이션 존을 통한 데이터 심층 분석(이노베이션 존)까지 안전하게 가명정보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유기적인 업무 체계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 가명처리 인프라, 전문인력 등이 부재한 지역소재 스타트업·중소기업 등을 위해 컨설팅, 교육·실습 등을 지원, 전국에 총 7개소 운영중(서울, 강원, 부산, 대전, 인천, 대구, 전북)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이노베이션 존 운영 기관 간 데이터 연계·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연계 허브*를 올해 구축하여 운영기관 간 협업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속적인 이노베이션 존 확대을 위해 국비지원 부문(1개소)와 자체구축 부문을 대상으로 지정 공모를 6월(예정)에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 개별 독립적으로 운영중인 이노베이션 존 운영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및 활용을 지원하여 이용자의 데이터 접근성 제고를 위해 도입(~11월, 구축중)

담당 부서 <총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원세연 (02-2100-3071)
		담당자	사무관	소성은 (02-2100-3074)
			주무관	김근후 (02-2100-3077)
<공동>	한국인터넷진흥원 AI 프라이버시팀	책임자	팀 장	이상걸 (061-820-2910)
		담당자	주 임	김예진 (061-820-2915)

